

# 고유정, 전 남편 시신 두차례 훼손

### 제주와 김포에서 피해자 추정 유해 발견 경찰 “가정사 범행 추정… 완전 범죄 꿈꿔”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사진)이 제주와 경기도 김포, 두 곳에서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나왔다. 특히 고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는데, 경찰이 수색을 벌여 피해자의 뱃포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상태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흉기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후 다음날인 26일부터 하룻 동안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훼손된 시신을 상자 등에 담은 뒤 자신의 차량에 싣고 펜션을 나섰다.

이어 같은달 28일 오후 6시쯤에는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장갑과 종량제봉투 30개,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해 시신 일부를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고, 이날 오후 8시30분쯤 탑승한 완도행 여객선 위에서 바다로 7분 동안 유기했다.

같은달 29일 가족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뒤에는 유기하지 못한 나머지 시신을 전문도구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 이 전문도구는 고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주문한 것이다

경찰은 같은달 31일 새벽 해당 아파트 내 쓰레기분류함에서 고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CCTV 영상을 확인, 쓰레기 운반경로를 추적해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3cm 미만의 유해를

다량 발견했다. 하지만 이 유해는 이미 소각 과정을 거친 뒤라 DNA가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밖에도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펜션의 정화조 등에서 머리카락 58수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박기남 동부서장은 “고유정이 결혼과 이혼, 재혼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완전범죄를 꿈꿔 ‘계속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적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얼굴이 공개된 이후 고유정은 밤잠을 설치는 등 현재까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불안한 모습으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서울제주도민회 갈등 법정공방 비화 지역회장단, 신현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신현기 회장과 지역회장단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제주도민회 시·읍·면 지역회 회장단 12명은 지난 4일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인 동시에 도내 각 지역 향우회장으로, 신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3월 20일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신 회장이 적격직 부회장의 수와 감사를 총래 15명에서 27명으로 증원, 사실상 후임자를 본인 지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회 회장은

직능직 부회장과 향우회·동문회장으로 구성되는 부회장단, 그리고 감사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이 중 직능직 부회장은 회장이 임의로 지명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또 지난 3월 20일 개최한 도민회 총회에서는 회장단 회의 승인없이 예산안이 의결됐고, 신청인들이 도민회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요구한 회칙 개정안 상정도 무시되는 등 신 회장이 절차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총회 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앞으로 양측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올해 시설하우스 화재사고 13건

### 피해 3000여만원… 전기 관련 원인 대부분

최근 누전 등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화재 및 고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고온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피해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시설하우스 현장방문과 피해예방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 13건의 시설하우스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3368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 원인은 대부분 온풍기 노후화, 자동개폐기 사용 또는 관리 미숙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일부터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210명

을 대상으로 화재 및 고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고온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피해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시설하우스 현장방문과 피해예방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난달에는 총 2회에 걸쳐 시설감광 재배농가 19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 사례와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소진기자

# 계획 범행 정황 곳곳서 포착

### 범행전 칼 등 구입… 시신유기 방법도 검색 피해자 고향 주민들 경찰에 철저 수사 촉구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 사흘전 마트에서 칼과 청소도구 등을 구입하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씨는 5월 22일 오후 11시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을 보면 고씨는 표백제 3개와 고무장갑, 칼, 도마, 종량제봉투, 청소용 솔, 먼지제거 테이프 등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으로만 보면 고씨는 범행부터 시신 훼손, 청소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고씨가 휴대전화로



고유정이 범행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동부서 제공

‘살인도구’, ‘니코틴 치사량’ 외에도 ‘시신 유기 방법’을 추가로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고씨는 지난달 18일 전남 완도항에서 배편을 통해 차를 몰고 제주에

입도했다. 이후 일주일여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진정에 맡긴 아들(6), 전 남편 강모(36)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들어갔다. 이는 숨진 강씨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고씨를 상대로 법원에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제기해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편 8일 피해자의 고향 주민 60여명이 제주동부서를 향의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이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으면 최소한 시신이라도 찾았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 “정부와 제주도정은 인권침해 사과하라”

강정마을회는 7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의 권고 요청 사안인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해군, 국정원, 기무사, 제주도 등에 대한 그동안의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정한 화해는 ‘진실에 토대를 뒤야 한다’는 것이 지금껏 저항해온 강정주민들의 기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오징어 말리는 고산포구 9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포구에서는 초여름 햇살아래 한 어민이 분주하게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 어제 우도 검멀레 해변 레저보트 충돌 7명 다쳐

9일 오후 2시8분쯤 우도 검멀레해변에서 레저보트 A호(승선원 17명)와 B호(승선원 11명)가 충돌해 강모(26)씨 등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장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 와 연안구조정에 의해 도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레저보트 선장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발전기 인양 작업자 숨져

9일 오전 10시15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1.5km 해상에서 작년 12월 침몰한 파력발전장치 플랜트 인양작업을 하던 바지선 H호(1219t, 부산선적)에서 그라인더 시운전 작업 중이던 이모(42·대전)씨가 파손된 날에 얼굴을 크게 다쳐 목숨을 잃었다.

해경은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민간 자율 구조선을 급파해 크게 다친 이씨를 응급수술에서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지만 숨졌다. 김현석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 제주센터 와이드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드스 제품

왜 와이드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점 : 와이드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품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성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 연세포르테비뇨기과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